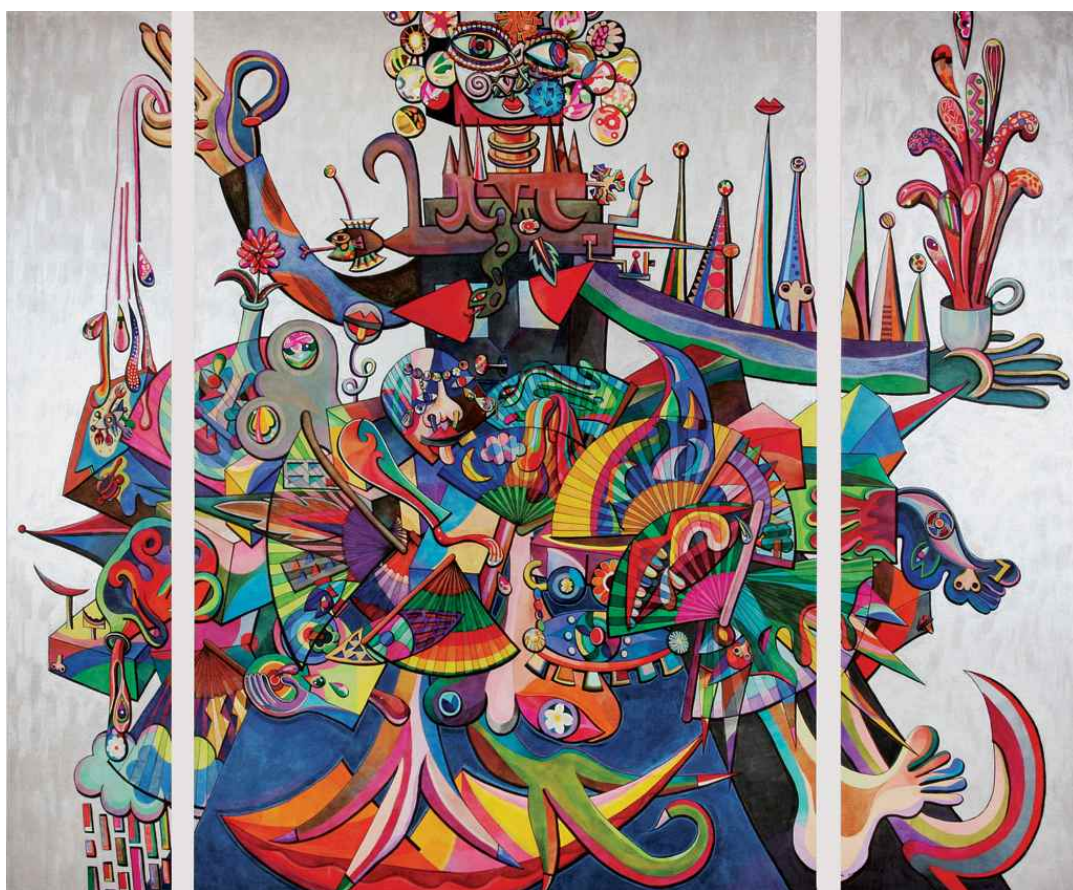


김언 - '시인, 화가를 만나다' 원고 (웹진 문지)

당신의 눈 코 입은 어디 있습니까? 덩어리가 묻습니다

- 이피의 작품들 -

직접 만나서 충분한 대화를 나눴지만, 이걸 너도 나도 없는 덩어리들의 대화. 그리하여 너의 말도 나의 말도 아닌 곳에서 흘러나오는 덩어리 한 마리의 독백이자 자화상. 그걸 엿듣고 왔다. 그걸 말하고 싶었다. 덩어리처럼.



나의 신전 My Shrine, 2009

Marker, Watercolor, Acrylic on the Rice Paper

215×285cm

만신전보다 더 어지러운 한 사람의 신전. 단 한 명의 신에게로 안내하는 이 어리둥절한 초대장과 형형색색의 부채들. 부채를 걷으면 문이 보일까요? 어느 하나라도 당신이라고 할 만한 세계를 보여줄까요? 나는 겨우 발 하나를 본 것 같습니다. 그게 당신인가요?

발이 보였다면 그것만 가져가세요. 나머지는 내일 또 바뀌어 있을 테니까.

그럴 겁니다. 나는 눈도 코도 입도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다시 오세요.

다시 왔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이미 나로 벅찬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더 많은 말이 필요하겠군요.

글쎄요, 말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상태, 그게 당신인가요?

나는 하나로 족합니다.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뻗어나가는 걸로 족합니다. 다른 하나에서 또 다른 하나로 존재를 바뀌어가는 걸로 족합니다. 아직도 부족한가요? 내 대답이.

뱀에서 당신 대답이 튀어나온다면 그건 혀가 되겠군요. 혀에서 침이 흘러나온다면 그건 끈적끈적한 물방울이고 끈적거리는 이물질은 곧바로 구슬로 응결되어 나를 쳐다봅니다. 눈동자 아니면 다른 세상을 비추는 수정체처럼. 치마가 펼쳐놓은 수많은 부채. 수많은 부채가 펼쳐놓은形形色색의 향연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요?

당신이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오세요.

또 왔습니다. 다른 질문을 들고. 준비됐나요?

그럼요. 나는 언제나 다른 생각으로 충만합니다. 달아나면서 튀어 오르는 저 찻잔 속의 분수처럼, 아니 식물처럼, 아니 동물처럼, 아니 아니.....

말을 가로막지 마세요. 내가 들을 수 없잖아요.

가시처럼 내 말은 내 말을 자꾸 찌릅니다. 내 몸이 내 몸을 자꾸 찌르는 창이 궁금한 사람. 그것도 당신인가요?



나의 나방 *My Moth*, 2009

Marker, Watercolor, Acrylic on the Rice Paper

200×150cm

내가 아니면 누가 나를 찌르겠습니까? 저 나방처럼. 저 나방 여인처럼. 낯선 이들의 목소리가 내게는 모두 상처처럼 들릴 때, 그 소리를 흡수하는 귀가 다시 상처처럼 돌아날 때, 가장 먼저 찢렸던 건 나의 더듬이, 어쩌면 정신없이 헤매고 다니던 나의 손놀림. 저처럼 부드럽고 저처럼 힘없는 두 팔에 박혀서 아름다워지는 나의 가시들. 상처들.

해석이 좋군요. 그럴듯하지만 좀 더 절박한 표현이 있을 거예요.

'아름다움이란 마음의 상처 이외의 그 어디에서도 연유하지 않는다'(장 주네)는 어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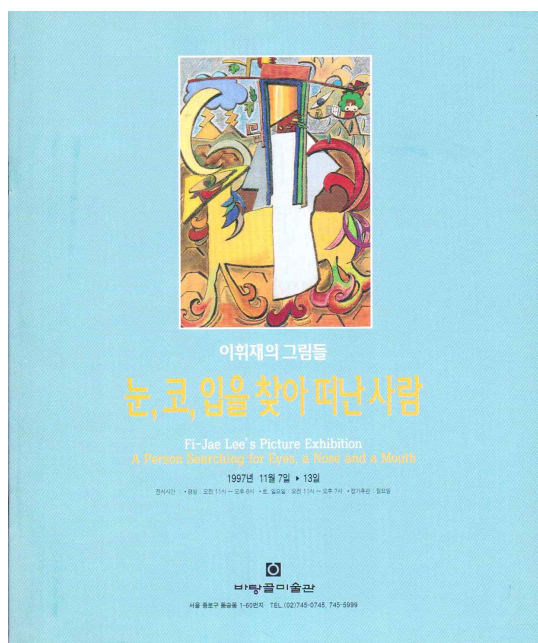
가서 말을 찾아오세요. 당신의 말.

그건 부끄러워서 거절합니다. 당신의 가시가 부끄럽게, 부끄럽게 저 그림 속에서만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어쩌면 나의 '말'은 거기서밖에 탄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작품 속에서. 아니면 저 날카로운 가시 끝에서. 입술이 열리고 혀가 생기고 눈동자가 맏히고 핏방울이 영롱해지고 신비해지고 마침내 갑옷 같은 치마 속의 화산이 폭발하면서 부끄러운 눈이 번쩍 뜨일 때, 칭칭 동여맨 절가슴도 영성하게 꺼안고 있는 광주리의 사과와 꽃병도.....

뭔가 결말을 내고 싶은 모양이군요.

그래서 그만두는 겁니다. 후회할 것 같아서요. 상상의 종말보다 더 끔찍한 것은 있으나 마나 한 결론을 뽑아내려고 발버둥치는 거니까요.

발버둥치는 건 또 있습니다. 보이나요? 무엇이든 전시하려는 저 얼굴은 자주 비어 있어요. 눈 코 입이 있어야 할 자리에 종종 다른 것들이 들어오니까요. 들어와서 한참을 보여주고 떠난답니다. 금방이라도 채워질 것처럼 비어 있는 곳, 텔레비전처럼 시끄럽고 소극장처럼 외로운 장소가 되기 위해 비어 있는 곳, 거기서 첫 개인전이 열렸어요. '눈 코 입을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벌써 13년 전 일이에요.



눈 코 입을 찾아가는 사람 *A Person Searching for Eyes, a Nose and a Mouth*, 1997

그 사람은 돌아왔나요?

돌아왔다 해도 못 알아볼 거예요. 당신이 매일 당신의 눈 코 입을 의심하듯이.

그런가요? 지금은 잘 붙어 있어요. 매일 쩡그리는 데 복무하고 있으니까요. 웃고 있지만 도저히 웃고 있는 얼굴이 아닌 저 인형들이 이상하게 불편하고 반갑습니다.



나나나나나나 Memememememe Candle, 2009

Mixed Media

70.5×200×40cm

그때는 내가 먼 이국땅의 시간 속에 갇혀 있을 때예요. 흐르지 않는 시간을 하루하루 겨우 밀어내면서 도달한 곳이 여기네요. 지나고 보니 그 시간은 금방금방 지나갔지만 그때의 그 인상들만큼은 떼내려가지 못하고 저기 저렇게 담겨 있지요.

발랄함과 꿈쩍함이 함께 담겨 있는 시절을 왜 물속에 보관했나요?

물이 아니라 젤 속이에요. 흐르면서 굳어가는.

굳어가면서 떠오르는, 떠오르면서 확대되는 저 표정이 어떤 때는 익사자처럼 보이고 또 어떤 때는 양수 속의 태아처럼 보입니다. 태어남과 죽음, 결국엔 그것이 전부라는 듯이. 그 사이 희미한 촛불처럼 잠시 살다 가는 게 또 전부라는 듯이.

또 해석하고 있군요.

미안합니다. 기포처럼 말이 많아서.

기포처럼 계속 떠오르는 것도 있어요. 속사포처럼 떠들어도 사라지지 않는 그걸 아직도 이름 붙이지 못하고 껴안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덩어리라고 부르는 이미지. 한 덩어리 암흑을 지탱하는 이미지. '나나나나나나'로 다 채워질 수 없는 이미지. 'Memememememe'로 다 담아낼 수 없는 이미지. 죽음 이후에야 엿보이는 이미지. 그래서 더 볼 수 없는 이미지. 혹시 자신이 죽은 이후를 상상해봤나요?

그것처럼 뻥해지는 상상도 없으니 해봤지요. 모두가 다 있는데 나만 없는 상상. 내가 없으니 모든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상. 그것처럼 먹먹해지는 상상도 없으니 더 다가갈 수가 없어요. 무섭기도 하고요. 상상만으로도.

우주가 끝장나는 상상은요? 나는 가끔 합니다.

나도 가끔 합니다. 우주의 종말. 그걸 계획이라고 세워놓고 쓰는 시는 없지만. 나의 종말을 고려하고 쓰는 시는 가끔 있지만. 물론 둘의 근본적인 차이는 없어요. 초점은 언제나 나를 향해 있어요. 이기적이지만 사실이에요.

이기적거리지만 계속 꿈틀대는 것이기도 하고요.

언젠가 말했던 '검고 따뜻한 짐승 한 마리'인가요?

그걸로는 왠지 부족한 느낌. 왠지 협소하게 명명해버린 느낌. 그냥 덩어리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덩어리째 와서 덩어리째 모습을 감추고 있는 그걸 뭐라고 부르든 그것은 살아 있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웅녀 *The First Woman in Korea*, 2009

Mixed Media

198×220×220cm

반인반수 같기도 하고 사람 몸을 관통하는 짐승 같기도 하고 내 몸에서 탈출하는 야수 같기도 하고 야수가 목 놓아 부르는 한 마리 뱀 같기도 하고 뱀의 축 늘어진 몸통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렇게 많은 피를 동원하고서도 빠져나가지 못한 짐승 한 마리.

짐승과 인간이 분리되기 전의 얘기니까요. 짐승으로부터 인간이, 인간으로부터 짐승이 분리되기 전의 이야기. 웅녀처럼 먼 신화 속의 이야기 같지만 따지고 보면 그리 멀지도 않은 이야기. 어쩌면 지금도 둘은 공존할지 몰라요. 한 사람 속에서, 그 짐승 속에서.

내 안의 짐승과 짐승 안의 내가 서로를 낯설게 쳐다보는 순간을 잊지 못해서 부르는 이름은 많아요. 보통은 나라고 부르지만, 그건 또 얼마나 멀리서 부르는 소리인가요? 아무리 불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웅크리고 있는 나. 아무리 대답해도 돌아보지 않는 곳에서 사라져가는 나.

여기 있는 나와 점점 멀어지는 나. 저쪽을 향해 가는 나와 이쪽으로 등을 돌린 나. 안쪽의 나와 바깥의 나. 들여다볼수록 먹먹해지는 나와 욕망으로 다시 떠오르는 나. 둘 사이 어디에도 머물 곳이 없는 나와 어디라도 좋으니 우뚝 서고 싶은 나. 둘 중에 누가 더 힘이 세냐 겨루고 있는 한 덩어리 짐승과 나.

한 덩어리 그 짐승을 보통은 회피하지 않나요? 무서워서라도. 징그러워서라도.

그 짐승 때문에 예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짐승이 없으면 내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징그러우나 무서우나 이런 걸 의식할 틈도 없이 곧바로 튀어나오는 이미지. 그것이 누군가에겐 거부감을 줄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전혀 다른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아름답다고 하는 이도 있을 거예요. 저마다 상처가 다르듯이 저마다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덧발도 다르게 심어졌으니까요. 어쩌면 예술이란 세상에 몇 안 되는 그 감정을 공유하는 이를 찾아가는 여행인지도 모르겠어요. 내장이 밖으로 나와 있는 저 여자에 대해서도 한편으로 거부하면서 한편으로 묘하게 공감하는 이유를 자꾸 곱씹어봅니다.



내장여자 *The Intestine Woman*, 2008
Mixed Media
224×91×91cm

안과 밖이 뒤바뀐 여자. 안에서 조용히 꿈틀거리고 있어야 할 내장이 밖으로 나와서 소란스러운 여자. 밖으로 치장해야 할 얼굴과 몸매가 모두 안으로 숨어버린 여자. 여자라고 이름 붙이기도 곤란한 저 여자의 난감한 치장 앞에서 나는 형태보다도 그 색깔에 자꾸 집착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기 싫다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저 원색의 덩어리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덩어리는 말하지 않아요. 보여줄 뿐이죠. 모양이 아니면 색깔로 드러날 뿐이죠. 다만 한 가지, 저 덩어리의 애호가는 바다 속 산호나 해파리의 발광하는 색깔을 좋아한다는 말만 덧붙여둘게요. 증거가 필요한가요? 여기 있어요.



The Eye Cloud, 2006
LED, Plexiglas
18×16×1.5cm



The Nose Cloud, 2006
LED, Plexiglas
18×16×1.5cm

발광하는 색깔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어요. 밀림에 사는 야생 생물들에게 흔히 보이는 구애색이나 경고색 같은 거. 어찌 보면 달콤한 꿀이 발라져 있고 또 어찌 보면 치명적인 독이 발라져 있는 색깔들. 하나는 짝을 불러들이기 위해 또 하나는 적을 내쫓기 위해 정반대편에서 서로 통하는 색깔들. 둘 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화려하고 선명한 색깔들. 원색으로 꿈을 거리는 저 내장이 외면하게 하는 동시에 자꾸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일까요? 경고와 구애, 거부와 환대가 함께 담긴 빛깔들이라서?

긍정도 부정도 못하고 있는 곳에서 내가 헤매고 있다는 걸 감안해서 생각해주세요. 나는 둘 다 아닙니다. 내장을 숨기고 있는 여자도, 짐승 같은 내장을 풀어헤친 여자도. 다만 둘 사이가 아득히 멀다는 것만 느낄 뿐. 너무 멀어서 그 사이 어느 지점에 머물러도 협소하게 보이는 곳, 거기 내가 있을까요? 나는 몰라서 묻고 물으면서 다시 시작합니다. 수상한 냄새와 함께 내 방에서 매일 새로 태어나는 사람.



승천하는 것은 냄새가 난다 no. 1
Everything Ascending to Heaven Smells Rotten no. 1
2010
Dried Squid, Mixed Media
132×50×50cm

온몸을 조각조각 오징어로 치장한 저 여인도 어디선가 본 듯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지만, 가장 좋아하면서도 가장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의 뒷모습을 잠깐 떠올리다가 묻습니다. 저건 누군가요?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충분할 것 같네요. 그건 뭐라고 규정할 수 없어요. 냄새처럼 달아나는 정체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고 달아나고 싶은 대로 달아나는 그 기억을.

규정할 수는 없지만, 좋으나 싫으나의 감정만큼은 분명하게 자극하는 것 같아요. 색깔이 호감과 비호감을 자극하는 것 이상으로 냄새도 호감과 비호감을 맹렬하게 갈라주니까요. 온몸이 마른오징어 냄새로 덮인 저 여인도 마찬가지로 처지일 겁니다. 누군가는 몹시 그리워하고 누군가는 몹시 기피하는.

알다시피 마른오징어는 여기서는 기호식품이지만, 서양에서는 혐오식품으로 찍혀 있어요. 구운 오징어 냄새가 시체 타는 냄새와 비슷하다고 해서. 구애의 빛깔과 경고의 빛깔이 동전의 양면처럼 바짝 붙어 있듯이 기호와 혐오를 가르는 기준도 본질적이지는 않아요. 이곳에서는 낯선 타자로 불리는 것이 저곳에서는 주인 행세를 하는가 하면, 저곳에서는 천대받는 것이 이곳에서는 정반대로 환대받는 그 무엇. 우리는 그 무엇을 오락가락하면서 살고 있는 지도.

제목도 그런 식으로 음미가 되네요. 죽어가는 것이 악취를 풍긴다면 승천하는 것에도 냄새가 난다는. 승천하는 것의 고유한 냄새가 아니라 사실은 죽어가는 것과 별다를 바 없는 냄새. 살아간다는 건 죽어간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살아 있는 것과도 별다를 바 없는 냄새. 어떤 빛깔과 냄새로 무장하든 '삶은 결국 부패의 한 과정'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공식을 세우는 건 제 몫이 아니에요. 공식처럼 일정한 틀을 잡고 작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무언가 강하게 끌어당기는 이미지가 떠오르면 그걸 붙잡고 작품으로 들어가요. 이후로는 여행하는 것처럼 작품 속을 돌아다니지요. 순간순간 떠오르는 여행의 경로를 따라 차곡차곡 공간을 채워가는 사물들이 탄생하고 또 달아나요. 다음 여행지로, 다음 여행지로 끝없이 몸을 옮겨가는 나의 덩어리들, 덩어리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그러나 끝내 묻지 않았던 질문 하나. 오징어 여인의 머리에 장식된 저 붉은 끈에 대한 질문. 저건 왜 달렸을까?

그리고 보면 이피의 작품에는 장식으로 채워 넣은 공간이 참 많다. 앞서 '웅녀'에 등장하는 짐승의 몸통에 촘촘하게 박혀 있던 구슬들, 나방 여인의 가시 끝에도 달려 있던 알록달록한 장식들, '나의 신전'에도 등장하는 온갖 부채들과 구슬들, 심지어 '내장여자'조차도 무언가 치장을 위해서 내장을 내어걸고 있는 느낌. 그녀의 작품에는 왜 이렇게 장식이 많은 걸까? 한 덩어리 작품에 달라붙은 저 끝없는 장식들의 변주를 든든하게 떠받쳐주는 듯한 시가 있어 한 편 소개한다. 이것으로 부질없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며.

우스운 일이다…… 나는 나 자신에 놀란다.

나의 비애는 거짓이 아니다. 산다는 것이 참을 수 없이 괴롭고, 비애에 잠긴 나의 마음속엔 기쁨이라곤 없다. 그런데도 나는 내 마음에 빛과 아름다움을 보태려고 애쓴다. 형상과 비유를 찾아 헤맨다. 문장을 다듬고 낱말의 음향과 조화에 부심한다.

나는 조각가와 같이, 금방의 세공 기사와 같이, 스스로 독을 따라 넣을 황

금의 술잔을 열심히 조각하고 깎으면서 온갖 장식을 다 하고 있는 것이다.

- 이반 투르게네프, 「술잔」(김학수 역, 『투르게네프 산문시』, 민음사, 1997)
